

축산업도 경영시대

양육도 변해야 산다.



축산유통연구소
장규성 소장

현 축산업은 경영화 되면서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축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어 양육업의 변화는 이제 시대의 요구가 되버렸다. 지금까지 양육은 사육규모나 생산액면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제 4위를 점하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가축으로 분류되어 축산정책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1월호에는 양육업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2004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슴 총 사육두수 13만 8천여 두 중 꽃사슴이 전체 사육두수의 58.8%인 8만 1천 여두, 엘크가 4만 6천여 두로 33.4% 레드디어는 7천 7백여 두로 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육산업의 경영화를 위해서는 가축 비용절감을 위한 ▲ 번식기반 확충 ▲ 자육 가격안정제 ▲ 암사슴 수매 등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과 사료 비용 절감을 위한 ▲ 국내 부존 사료자원 활용 확대 ▲ 초지 활용이 가능한 중간 지역 산림 내 사슴 방목 등이 허용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거의 사용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이다. 각 산업 분야가 생존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꾸준한 변화를 모색 해야만 하는 절박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양육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양육은 사육규모나 생산액면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제 4위를 점하는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기타 가축으로 분류되어 축산정책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물론 국내 양육 산업의 주변여건의 어려움, 영세성 등의 요인이 워낙 크게 작용되고 타 축산업에 비하여 생존 차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동업종 종사자들의 단결력 등은 역부족이다.

세상은 돌아서면 변한다. 신토불이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업종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성향을 모르고서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그간 소홀했던 점, 후회스러웠던 사안들을 재정립하여 ‘위기는 기회다’ 라는 자세로 재도약의 기회가 되는 2006년이 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식생활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면 생산은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식생활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로 직결 돼 있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은 도태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 소비·시장변화를 읽어야 된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①경제적인 요인 ②인구·사회적인 요인 ③건강의식 요인 ④시장유통변화 등의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는 시중 경기의 좋고 나쁨은 물론이고 소득 격차 심화 여부 등 가계 소득 중 식품 소비 비중 변화 요인을 파악해 향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차후 인구·사회적 요인인 고령화 추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 변화, 출산을 저하, 핵가족화 등의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동향 변화, 주5일제 근무 확산, 외식·급식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주목 돼야 할 것이다.

“웰빙”으로 대두되는 요즈음 생활패턴 변화에 먹거리는 최우선 고려 항목이다. 웰빙은 친환경 식품 소비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오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차 식품은 물론이고 건강 식품 시장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DDA, FTA 등 국제 교역 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유통 시장 변화를 주시해야 된다. 국내 유통시장도 국·내외 대형 할인점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전자 상거래, 홈쇼핑, 네트워크 판매 등의 활성화도 시장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식품관련 시장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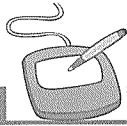
최근의 식품 소비 경향은 가장 중요시 되었던(품질, 가격 등)요인이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더욱 강화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향후 식품관련 시장에서는 제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축산물 생산, 유통업계의 최대 이슈인 브랜드화, 생산 이력제 등의 노력을 들 수 있겠다. 소득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일반 식품에서 자기의 건강을 개선, 유지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식품소비도 건강을 위한 식품, 기능성이 보장된 식품소비가 확대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식품 시장 확대가 가속화 될 듯하다.

또한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득계층별 소비가 뚜렷해지고 가치소비차원의 식품 선택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는 핵가족화 영향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편의화된 주·부식 시장이 확대 될 것이다.

식생활의 서구화는 외식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식품시장의 세계화와 전통 고유식 문화, 서구식이 혼합된 퓨전식 식문화 등이 확대될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식품 원재료 시장이 점차 완전 개방 흐름 속에 진입된바 외국산 가공 식품, 건강 식품 등도 국내 식품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육 산업의 현황



국내의 사슴 사육두수는 1988년 3만3천여 두에서 1992년 6만 9천여 두, 1995년에는 10만두를 돌파하며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2001년에는 15만 6천두를 최고점을 기록한 후 시중경기 부진 영향과 녹용수입증가로 2004년 말에는 13만 8천여 두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육가구수도 1988년 3천9백여 농가에서 1992년에는 7천90여 농가, 1997년에는 1만 농가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1년에는 1만 2천 5백여 농가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04년부터 1만여 농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당 사육두수는 1988년 9.5두에서 1993년에는 10두를 넘어섰고, 1997년 12.5두를 보인 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암사슴의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녹용의 생산량이 많은 엘크 사육은 증가한 것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녹용은 1998년에 국내산 36톤(건녹용 환산)포함 110여 톤에서 2000년도에는 146톤(국내산 5만3천톤), 2002년도에는 200톤(국내산 6만2천 톤 추정)으로 증가했고, 2004년도에는 국내산 70여톤, 수입 산은 17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슴 총 사육두수 13만 8천여두 중 꽃사슴이 전체 사육두수의 58.8%인 8만 1천 여두, 엘크가 4만 6천여 두로 33.4% 레드 디어는 7천 7백여두로 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국내산 자급 율은 1998년 33%에서 2000년 경기 부진과 수입물량의 감소로 자급

율이 36%대로 증가했다가, 2002년도에는 30%선으로 낮아졌고, 2004년도에는 29%에서 30%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수입녹용의 물량 증가가 2004년도에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나 절편 녹용 수입자유화 영향을 반증했다.

품질 표준 및 인증제도 절실한 양육 산업

국내 양육 산업은 국산 녹용의 품질 표준화, 인증제도 등이 시급하다. 세계 최대의 녹용시장인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녹용의 확고한 판매처 확대가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품질 녹용생산 노력 미흡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 결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 한의학계, 학계 등과의 연계 연구노력이 부재하고, 국내산 녹용의 대부분이 전근대적으로 농장에서 생녹용, 증탕으로 직거래되는 불안정한 유통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 녹용의 품질 표준화, 인증제도 등의 시행이 녹용 품질 제고를 위해 시급하겠다.

여기에 정보 수집력 빈약함은 판로확보와 적정가격의 책정의 어려움을 가져 왔다.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소비 홍보 체계의 미비, 소·돼지·닭에 이어 제 4의 가축임에도 기타 가축으로 분류 돼 축산정책지원에서 소외 되어 있는 상황! 이것은 양육 농가들의 협회, 조합으로의 집합력 부족으로 생존차원의 지구 노력이 미흡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 산업은 생산성 향상성을 위한 연구 미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수입 산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양록 규모의 영세성과 사료비용 과다로 인한 생산비 과다는 물론이고 두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연구개발 미흡은 녹용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 산에 비해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 자율 수급 안정 미비 및 경영상 위험관리 시스템 미흡도 가격 경쟁력제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물 포함 먹거리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웰빙”과 “위생·안전에 관한 신뢰”로 요약된다.

세계 최대 녹용소비시장을 두고,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터에 이에 맞는 국내 양록산업 변화는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존 차원의 양록인들의 몫이라 본다.

“소비자들은 영리하고 영악하다” 소비자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품질이 가능한 좋고, 가격은 가급적 구입에 용이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의 신뢰가 보장되는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전체 양록인들이 명심해 주셔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차후 양록 산업의 열쇠: 양록인의 단합

우리나라는 세계 녹용의 8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녹용소비 국가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축산에서 타 축종보다 우위를 점하는 점과 타 축종보다 사료 자급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 양록 산물의 용도 및 다양성 등을 부각시킨 연구가 절실하다. 더불어 가축 비용절감을 위한 ▲ 번식기반 확충 ▲ 자육 가격안정제 ▲ 암사슴 수매 등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과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 국내 부존 사료자원 활용 확대 ▲ 초지 활용이 가능한 중간 지역 산림 내 사슴 방목 등이 허용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모화, 전업 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종록 개량, 사육기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 역시 중요 항목일 것이다. 또한 국산녹용의 한약 규격품 제조 및 품질 보증 표준화를 통한 등급제 시행으로 녹용 규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고품질 녹용생산 기술개발 보급과 품질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력제(실명제)실시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기 때문이다.

양록 산물의 다양성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 규격품 유통강화 ▲ 유통구조 개선 ▲ 한의 약계에 진입 ▲ 소비 확대를 도모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강력한 홍보기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조금 조성에는 전 양록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녹용소비 최대시장을 국내 양록 사업과 연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지원과 관계 법령 재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양록인들의 집중된 역량 없이는 협회도, 조합도, 자조금 조성도 어렵다 본다. 2006년은 국내 양록 산업이 재 도약 아니 새로이 출발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